

데스크초대석

‘금강경 석경전’ 여는 김진희씨

‘늦게 배운 도독집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도독집’만 아니라면 늦게 배웠을지라도 흠뻑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친 듯이 미쳐보라’는 말도 있다. 어떤 일이면 미친 듯이 몰두하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표현은 과격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상 틀림없는 말임에 공감한다. 전각가 김진희씨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는 개신교의 가정에서 자랐다. 서예를 공부했고 전각을 배워 작가가 됐지만 불교를 접해 본 적은 없었다. 지천명의 나이가 이을어 가는 즈음에 눈을 떴다. 전각의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불교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눈 뜬 기쁨, 거기에 석경(石經 경전을 새긴 돌판이라는 새로운 길이 있었다.

미친 듯이 미쳐 버렸다. 새롭게 보인 그 길에 몸을 던지고 손이 부르듯 팔에 미비가 올 정도로 집질을 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의 세상에서 자신이 새로 태어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버려야 했다. 지난 시간에 얽혀 온 모든 인연을 버려야 했다. 새 길을 본 사람은 주변을 정리하게 마련이다. 더 외롭고 더 가난하고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길을 위해 자신의 살림살이를 단출하게 줄였다. 그리고 작업에 몰두했다. 사방 30cm의 돌판에 200자씩의 경구를 새겨 넣으며 돌판과 칼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 전각가로서 석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고 그 성과물을 대중 앞에 처음으로 드러내는 김진희씨. 그는 근현대 우리나라 서예계의 거장 강암 송성용 선생과 하석 박원규 선생의 맥을 사사한 서예가다.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인 그는 전각에 몰두하다가 근래들어 석경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서예에서 전각, 전각에서 석경으로 작업의 영역을 넓혀 온 그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생애 첫 개인전 ‘금강경 석경전’을 연다. 전시회 준비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진희 씨에게 석경의 세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석경 조성의 전통은 끊어진 것으로 하는데, 석경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석경의 역사는 구려 화엄사에 전하는 ‘화엄석경’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온전한 형태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1만 4000여 석편으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국보 1040호). 석경은 경전을 오래 보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등장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경전 그 자체를 오래 보관하자는 의미와 그 경전의 가르침을 오래 전하자는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앞의 경우가 시대가 혼란하여 경전 자체가 유실 파손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뒤의 경우는 고상한 가르침을 신봉하는 신앙인들을 오래 지속하고자 하는 열원을 담은 불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석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모시자는 근원적인 원력을 담고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쇄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인지, 석경 조성의 붐을 일으킨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석경이라는 장르에 빠지고 보니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 작업임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의 석경 작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술적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장르로 석경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각의 측면(側款)에 주목함으로써 석경의 새로운 형태를

창안할 수 있었습니다. 측면이란 인장을 새긴 전각 작품의 옆면에 전각의 내용을 풀이 해 둔 글귀를 말합니다. 문인화에서의 화제(畫題) 같은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측면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측면은 바탕 글씨 없이 바로 칼로 새겨 넣거든요. 일도 일각(一刀一刻)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씨가 매우 힘이 있고 칼맛이 살아나고 돌과 금속의 기운이 합일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기법을 석경에 적용해 보니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작품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측면의 새김법을 이용한 석경이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돌 신라 이후 단절된 석경이라는 경전 조성 형식이 전각

예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작업이 새로운 시작이라면 누군가 저를 이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석경의 분야를 넓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종교문화는 과거의 정형화된 관습을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예와 전각의 경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석경 조성의 경우 불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저는 석경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불교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맥 끊긴 ‘石經’ 불교문화 새 장르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석경 작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특별하다면 아주 특별하고 아니라면 그저 그런 계기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스님께서 화엄석경 이야기를 들려 주셨는데 웬지 마음이 끌리더군요. 그래서 한 번해보자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돌판을 구해 글씨를 새겨 봤는데 그간 내가 찾던 그 무엇을 만난 듯 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작업보다 재미가 있었어요. 작업을 하는 동안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서예를 배우고 전각을 한 모든 것이 석경 작업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스스로 ‘내가 신라시대 화엄사에 석경을 조성한 석공 중의 한 사람이었거나 전란 때 화엄사 석경을 파손한 침략군의 병사였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석경과 두터운 인연을 지녔을 것이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인연을 통해 새로운 세상 즉 미래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라 해야 할 ‘확신’이 생기면서 일이 더 즐겁고 신났습니다. 가난해도 즐겁다고 하니가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미친 것’이라고 칭찬(?) 하더군요.

-그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어떤 경전을 조성하셨는지요?

처음에는 <반야심경>을 했고 그 다음엔 <금강경> 그리고 지금은 <법화경>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은 380여장의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올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엄경(80화엄경 본)>을 3000장 가량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1주일에 5판을 새긴다는 전제로 계산해 보니 15년이 걸리더군요. 그런데 <화엄경>을 15년간 붙들고 있는 동안, 저의 석경 작업을 이어갈 사람이 찾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작업이 비록 돈은 안 돼도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니 누군가 제 길을 뒤로 밟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화엄경>을 다 하고 나면 <신수대장경>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석경판에 칼질을 하다가 금생의 인연을 마감하더라도 힘닿는 순간까지 일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이번 전시회가 첫 개인전이라는데...

그간 그룹전에 동참한 것 말고는 전시회를 한 적이 없어요. 지인의 권유를 못 이겨 개인전을 준비했지만, 혼자 만족해 온 석경의 세계를 세상에 드러내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금강경> 석경과 더불어 서예 작품, 사경작품, 전각, 석각 등 다양한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아무래도 석경 작품이 처음 전시장에 나오는 것이라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전각 작품에서도 독특한 시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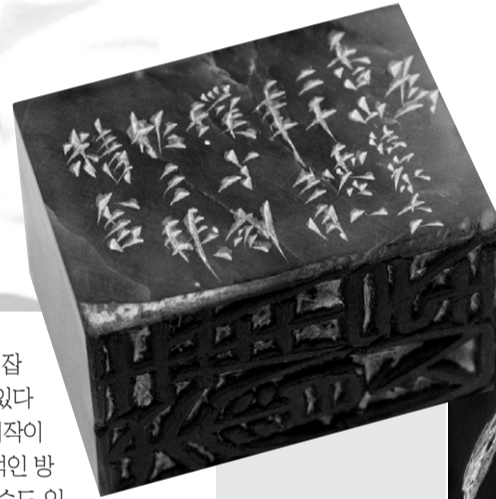
네, 전각 작품은 대체로 규격이 작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관찰이 아니면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판화 기법을 이용해 20배 크기로 확대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해 보았는데, 의외로 확대한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의도된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난 새로운 형식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맛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작업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의 작업장이 산업 공단으로 수용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입니다. 돌을 사다놓고 작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깐요. 그리고 완성된 석경이 좋은 인연을 따라 성스러운 곳에 모셔지길 바랍니다. 석경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법신(法身)이니까요.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원 기자

서예·전각서 석경으로 작업영역 확대 4월 15~21일 생애 첫 ‘석경展’ 개최



‘금강경 석경전’을 여는 김진희씨는 전각작품의 옆면에 새겨진 측면(위 사진)에서 석경 조성의 힌트를 얻었다. 오른쪽은 김씨의 전각 작품.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with multiple listings for '불자 정보' (Buddhist Information) and '부동산' (Real Estate). Includes contact info for TEL 02) 2004-8215 and various property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